

평화로 밝힌 '금남로 촛불'

광주 최대 규모 3만여명 참여... 충돌없이 질서 집회

1987년 6월 민주화 함성으로 가득했던 광주시 동구 금남로가 21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 만개의 촛불로 다시 뒤덮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6·10 항쟁’ 21주년인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대학생·종교계·노동계·농민 등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 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1개월이 넘도록 계속돼 온 촛불집회 중 최대 규모를 보였고, 미국산 쇠고기와 대운하, 교육문제 등 ‘MB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비판하는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이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대장정이 다시 시작됐다”는 ‘주권재민’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계·대학생·종교계·여성계 등 각계 단체와 시민들은 광주 시내 곳곳에서 별도 집회를 하고 거리행진을 통해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금남로로 운집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부는 이날 오후 6시 광주공원에서 조광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 사전 결의대회를 했고, 오는 13일 총파업 결의를 한 화물연대 광주지부도 이날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내에서 총파업 출정식 등을 갖고 금남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전남대와 조선대·광주교대 학생들이

도 교내에서 각각 집회를 했으며, 불교계는 원각사 앞에서, 기독교 단체는 YWCA에서 기도회를 하고 거리행진을 통해 집회에 합류했다.

여성단체 등 여성계도 금남로에서 별도 집회를 하고 유모차를 앞세우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또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이 직장인 등으로 변해 21년 만에 촛불을 들고 다시 금남로에 서기도 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10일 농민회가 제공한 쌀 40kg짜리 10가마를 주먹밥으로 지은 뒤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국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청소년이 밝힌 촛불은 이제 들불이 돼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금남로에 지펴진 촛불은 이명박 정권이 항복하는 순간까지 내려놓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또 “쇠고기 정부고시 철회·재협상 ▲의료 민영화·물 사유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한반

도 대운하 건설 저지 ▲귀족교육 되물림, 학교 서열화 강요하는 4·15 공교육 포기정책 저지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화제가 끝난 뒤 장동 로터리-대인 광장-구 시청 4거리-한나라당사-광주역을 거쳐 다시 금남로로 돌아오는 6km의 촛불 거리행진을 갖고 자신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100명의 교통경관을 배치, 질서 유지를 해 집회 참석자들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최권일기자 cki@

大同의 광주

주먹밥 나누고 초등생들은 걸개그림 색칠 '한마음'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최루탄으로 가득했던 금남로는 21년 후 ‘축제의 촛불’로 뒤덮였다.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금남로에 모인 광주시민들은 ‘촛불 문화제’라는 타이틀처럼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교통통제가 예정된 오후 4시가 되자 교통 경찰들은 옛 전남도청과 옛 광주은행 사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행사 주최 측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도 바쁘게 시민들을 맞이했다. 이들이 준비한 양초와 종이컵은 각각 5만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조’가 적힌 티셔츠와 쇠고기 수입 반대 배지 및 가정용 현수막 등을 판매하는 부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산강 운하 백지화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부스를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머리에 착

용할 수 있는 대형 종이베를 접어 시민들에 나눠줬다.

‘광주전남 교육연대’ 부스에서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이 이뤄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함’을 마련해 시민들의 뜻을 담았다.

농민회가 제공한 쌀 40kg 짜리 10가마는 주먹밥으로 지어져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메인 무대에 설치된 대형 걸개 그림에는 문화제 시작 전 시민 각자가 적은 소망으로 빼곡했다. 초등학생들도 걸개 그림에 색칠을 하며 힘을 보탤었다.

본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7시가 가까워 오자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았다.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금남로에 도착하자 문화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광주 금남로의 모든 상황은 네티즌에 의해 UCC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www.afreeca.com)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원침 (7528) 김장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전남대 교수 145명 시국선언

전남대 교수 145명이 6월 항쟁 21주년을 맞아 10일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이 2008년 6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6월 항쟁 정신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100일 만에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화적 ‘촛불문화제’로 형성된 여론을 반민주적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은 선진적 민주화와 민주적 선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 정부는 후진적 반민주화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백지화와 전면 재협상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둔 대북강경정책과 대미굴종 외교 시정 ▲효율성만 따지는 교육 정책 시정 ▲한반도 대운하 정책 폐기 ▲의료와 수도 관련 공기업 민영

화 계획 철회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통제 중지 ▲공권력 동원한 폭압 중지 등을 수용, 실천에 옮기라고 요구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아이 낚치 협박 받았다”

‘유모차 부대’ 주부 신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젊은 주부가 “유모차 부대가 한 번만 더 보이면 아이를 낚치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유모차를 아이를 태우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여성 A씨는 한 인터넷 요리사이트 게시판에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면 아이를 낚치하겠다”는 협박전화가 9일 하루 4차례 걸려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어디 자식 키우는 바탕에 둔 대북강경정책과 대미굴종 외교 시정 ▲효율성만 따지는 교육 정책 시정 ▲한반도 대운하 정책 폐기 ▲의료와 수도 관련 공기업 민영

‘철없는 대학생’ 게임 지자 중학생 폭행

○광주북부경찰은 10일 “게임에서 졌다”며 중학생을 폭행한 광주 모 대학교 3년 A(23)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오락실에서 격투 게임인 ‘철권’을 하던 중 자신이 서너 게임을 내리 지자 화가나 상대방인 광주 모 중학교 2년 B(14)군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군의 안경이 망가진 것을 보고 사과한 뒤 “수리비를 주겠다”고 속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왔는데, 경찰에서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와 뒷자리가 헛갈렸을 뿐 일부러 다르게 적어 준 것은 아니다”고 진술.

○경찰은 신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 현행범으로 A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넥타이 부대’ 21년만에 다시 뿔다

‘6·10 항쟁’ 주역들 금남로 촛불 동참

1987년 6월 항쟁의 흐름을 일거에 바꾼 넥타이 부대들이 21년 만에 금남로에 다시 나왔다.

10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서터엔 앞. 말쑥한 정장,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30~40대 셀러맨 100여명이 한 손엔 촛불을, 한 손엔 피켓을 들고 왔다. 하나 둘 모이던 숫자는 금세 100여명이 넘었으며 가두행진 시작을 알리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전열을 가다듬어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하라”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이들은 19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당시 대학생들로 386세대, 세월이 흘러 대학생에서 중년의 직장인이나 사업가로 변했지만 촛불 집회에 나서 21년전의 감격을 재연하지는 가슴 속의 정열만은 여전히 있다. 왕년의 운동권 세대들이 모인 만큼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으며, 피켓을 펼치는 모습도 일사불란했다. 인도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6월 항쟁의 재연을 보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최근 미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중·고생들에서 시작됐다면 6월항쟁은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그만큼 당시 넥타이 부대가 갖는 의미는 컸었다.

넥타이부대 시위 재연은 1993년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오창규(41)씨 등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오씨 등은 80, 90년대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지역 운동권 학생들과 고 박승희(1991년 본선 사망), 고 이철규(1989년 병사 체로 발견) 열사 기념사업회 회원들에게 연락, 촛불집회 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오씨는 “2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권이 있어 모이게 됐다”며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234-3222

299,000

399,000

429,000

389,000

550,000

270,000

신착출 한정 특가행사!

북경 / 민적장정 329,000

북경(동향대학생) 무제한공포 399,000

상해 / 항주 / 황산(真山) 469,000

상해 / 항주 / 황산(真山) 499,000

장사 / 장가계 / 임차계 599,000

상경 / 북두산 699,000

홍콩(관방+차위) 4월 749,000

홍콩 / 마카오 / 실린 4월 829,000

홍콩 / 디즈니랜드 4월 829,000

699,000

1,990,000

239,000

미국비자

중국비자

062-233-5900